

가정

하나님께
 예배 드립니다.



성경이야기

여러분,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“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”라고 말했는데,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버린 적 있나요? “이 정도는 괜찮겠지?”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나중에 혼나거나 문제가 생기면, “아, 그냥 말씀대로 할 걸...” 하고 후회하게 되지요.

오늘 말씀에는 사울 왕이 나와요.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어요. 겉으로 보면 좋은 이유 같지요?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. 왜 그랬을까요?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좋은 결과보다 “순종하는 마음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.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분명히 말해요. “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.”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,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.

사울은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.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세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“끝까지”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.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.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“이건 꼭 해야 하나?”, “이건 좀 빼도 되지 않을까?”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.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. 그리고 그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.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, 기쁘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!

함께 외쳐볼까요? “순종이 제일 중요해요! 끝까지 순종해요!”

